

‘우레’와 ‘울다’의 어원

김무림 ·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

1.

현대국어의 ‘우레’는 ‘울다’의 어간 ‘울-’에 접미사가 연결되어 생긴 말이라고 알려져 있으며, 이러한 어원설은 많은 사람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역사적인 어원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그리고 현대국어의 ‘울다’에는 대체로 ‘눈물을 흘리다’와 ‘큰소리를 내다’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, 이러한 의미가 본래부터 한 단어 안에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‘우레’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국어사전에서 ‘우레’와 ‘울다’에 대한 뜻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■ 우레

「명사」=천둥. 【<울에<석상>←우르-+에】

■ 울다01[울 : -] [울어, 우니[우 : -], 우오[우 : -]]

「동사」

「1」 슬프거나 아프거나 너무 좋아서 견디다 못하여 소리를 내면

서 눈물을 흘리다.

「2」 짐승, 벌레, 바람 따위가 소리를 내다.

「3」 물체가 바람 따위에 흔들리거나 움직여 소리가 나다

「4」 종이나 천둥, 벨 따위가 소리를 내다.

「5」 병적으로 일정한 높이로 계속되는 소리가 실제로는 들리지 않는데도 들리는 것처럼 느끼다.

2.

15~16세기의 중세국어에서도 ‘울다’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. 그러나 그 의미는 현대국어와 비교할 때, ‘(소리를 내어) 눈물을 흘리다, 소리를 내다’에 해당하는 말이었으며, 어간 ‘울-’의 성조는 상성이었습니다. 문헌 용례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■ 중세국어 ‘울다’의 용례

- 아들 우루물 슬피 너겨 드르샤(용비어천가 96)
(아들 울음을 슬피 여겨 들으시어)
- 짜해 디여 우르샤(석보상절 11:21)
(땅에 거꾸러져 우시어)
- 부피 절로 우니(월인천강지곡 80)
(북이 절로 우니)

중세국어의 ‘울다’는 위의 용례에서 대체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‘눈물을 흘리다, (작은) 소리를 내다’ 등의 정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.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‘울다’는 뜻풀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‘(사나운 짐승 따위가) 큰 소리를 내다’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. 그러나 중세국어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‘울다’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‘우르다’란 말을 썼습니다. 용례를 보이겠습니다.

■ 중세국어 ‘우르다’의 용례

- 龍과 범패 혼변 이프며 우르느니(두시언해-초간 8:56)
(용과 범이 한번 읊어 부르짖으니/울부짖으니)
- 大龍이 큰 구름과 霹靂 니르와다 우르고(월인석보 7:35)
(대룡이 큰 구름과 벽력 일으켜 부르짖고/울부짖고)
- 멀허멧 므리 우르고(두시언해-초간 11:37)
(마굿간의 말이 울고/울부짖고)
- 하늘과 찢 스시에 사르미 불괴야 우르니라(두시언해-초간 8:56)
(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들끓어 울부짖었다)

중세국어에서 ‘울다’와 ‘우르다’는 의미의 중복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, 대체로 ‘울다’는 ‘눈물을 흘리다, (작은) 소리를 내다’ 등에 해당하고, ‘우르다’는 ‘큰 소리를 내다, 울부짖다’ 등에 해당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. 참고로 중세국어 문헌에서 사용된 ‘울다’와 ‘우르다’의 어미 활용을 대조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■ ‘우르다, 울다’의 어미 활용

- 우르다: 우르고, 우르느니, 우르니, (우르샤), 울어, 울음
- 울다: 울고, 우느니, 우니, 우르샤/우르샤, 우러, 우름

이와 같은 활용형에서 주체 존대 활용형인 ‘우르샤’는 ‘우르다’의 활용으로는 문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. 이것은 ‘우르다’의 주체가 존대할 대상이 아닌 까닭일 것입니다. 다만 ‘우르다’와 ‘울다’의 주체 존대 활용형은 ‘우르샤’에서 표면 형태가 같을 수 있지만, ‘우르다’의 주체 존대는 ‘우르+샤’로 분석되는 반면에, ‘울다’의 주체 존대는 매개모음 결합형인 ‘울+으/으+샤’로 분석되어 기저 형태의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.

현대국어에서 ‘우르다’는 소멸된 단어입니다. 그러면서 ‘우르다’에 해

당한 의미는 모두 ‘울다’에 넘겨주었습니다. 그러므로 현대국어 ‘울다’의 어원은 중세국어를 기준으로 할 때, ‘울다’와 ‘우르다’의 합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. 물론 이러한 어휘적 합병 과정에는 ‘울다’와 ‘우르다’의 형태적 유사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. 그러나 ‘울다’와 ‘우르다’가 각각 다른 형태적 근원을 가진 말이라면, 현대국어 사전에서는 동음이의어(同音異義語)로 처리하는 것이 어휘사의 입장에서 적절합니다.

이제 ‘우레’의 어원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. 이미 짐작한 바와 같이 ‘우레’는 ‘울다’의 ‘울+에’에서 온 것이 아니라, ‘우르다’의 ‘우르+에’의 구조에서 형성된 파생어입니다. 앞에 보인 활용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, ‘우르+어’가 ‘울어’가 되는 것처럼 ‘우르+에’는 ‘울에’가 됩니다. 역시 중세의 문헌에는 다음과 같이 ‘우레’가 아닌 ‘울에’입니다.

■ ‘울에’의 용례

- 울에 번개흐니 사르미 다 놀라더니(석보상절 6:32)
(우레 번개하니 사람이 다 놀라더니)
- 虛空 소갯 울에는 殷殷히 찢 脉을 좇느니오(두시언해-초간 7:24)
(허공 속의 우레는 은은히 땅의 맥을 찾는가)

만약 중세국어의 ‘울에’가 ‘울다’에 어원이 있다면, ‘울+게’의 구조에서 ‘ㄱ’이 탈락하여 이루어진 파생어라고 설명하게 되며, 이러한 형태론적 설명이 중세국어 문법에서 가능한 방법입니다. 그러나 ‘우르+에’를 ‘울에’의 어원으로 설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‘우르다’와 ‘울에’의 의미적 연관성이 보다 명확한 까닭입니다.

3.

지금까지 현대국어 ‘우레’의 어원을 ‘울다’의 어휘사적 유래와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. 중세국어에는 ‘울다’와 ‘우르다’의 두 어휘가 있었는데, 이 둘의 의미가 현대국어 ‘울다’로 합병되면서 ‘우르다’는 소멸하였습니다. 그리고 현대국어 ‘우레’는 중세국어 ‘울다’에서 온 것이 아니라, ‘우르다’의 어간 ‘우르-’에 접미사 ‘-에’가 연결되어 파생된 말이라는 것도 설명하였습니다.

중세국어의 ‘우르다’는 현대국어의 ‘우레’ 외에도, ‘우르르, 우르릉, 으르렁’ 등과 같은 의성어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. 문제는 중세국어의 ‘우르다’와 ‘울다’가 같은 어원인가 하는 것입니다. 어원이 같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, ‘우르다’가 의성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, 중세국어 ‘우르다’와 ‘울다’는 별개의 어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천착할 문제이므로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둡니다.

‘우레’와 ‘울다’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설명은 이동석(2009)의 <중세국어 ‘우르다’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>에 기댄 바가 큼니다.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.

참고 문헌

- 김무림(2004), 《국어의 역사》, 한국문화사.
김민수 편(1997), 《우리말 어원사전》, 태학사.
심재기(1982), 《국어어휘론》, 집문당.
이기문(1991), 《국어어휘사연구》, 동아출판사.
이동석(2009), 중세국어 ‘우르다’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, 《국어사연구》 9, 국어사학회.
21세기 세종계획(<http://www.sejong.or.kr>): 한민족 언어 정보 검색

- 기타 자료 문헌 및 사전은 본문을 참조.